



# 時計塔

SIGETOP



2013년 4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40권 2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

발행인: 金一泳  
편집인: 金炳哲

편집위원: 徐亮 李元澤  
徐仁錫

자문위원: 盧鎔冕 李熙景  
許善行

## 2013년, 제 30차 미주동창회 연례학술대회 보고

지난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로스앤젤레스 근교 Pacific Palms Resort에서 120 여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연례학술대회 및 축제가 열렸으며 후속으로 53명의 동행한 5박6일간의 인디언 유적지 탐방 테마 여행이 있었다.

대회 첫날인 3월 14일은 최광희 동문 사회로 깔끔한 중국요리 부패를 결들인 환영연이 베풀어져 한국에서 오신 강대회 학장, 정희원 병원장 등의 인사말과 각 지역 동문들의 현황설명 및 동기모임이 있었다.

둘째날 3월 15일은 이원택 총무의 사회로 박진국 부회장의 교기입장, 백승원(79)동문이 선정한 교가 제창에 이어 김일영(71) 회장과 문대옥(73) 전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본국동창회 박용현 회장을 대신한 김종화 부회장 및 강신호 전임회장의 축사와 전년도 임원진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절반은 타고 절반은 소금범벅인 남미식 스테이크를 곁들여 MCHART의 Kyle 정의 전자환자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듣고 후속을 김영균 악단이 주도한 여흥이 있었다.

셋째날 3월 16일, 1부는 백승원 동문 사회로 서울대 남가주 동창회 김삼찬 회장의 축사와 패션계의 거장 Light House의 김태연 박사의 까무러칠만한 격려사가 있었다. 2부는 이운식 씨 사회로 백승원동문 부부가 주도한 강남스타일 댄스 공연과 오리지널 남미 썸바 쇼에 이어 동문들의 무도회로 흥을 돋구고 다같이 '만남' 과 '석별' 의 노래를 부르며 마지막을 장식했다.

골프대회는 첫째날은 BeBe 코스에서 27명, 둘째날은 Ike 코스에서 25명이 참석하여 노익장을 과시했다. - 이원택(총무) 보고

동창회 총무 이원택(71) 동기가 공사 분주하여 학술위원장인 조세진(71)이 보고서를 대신 작성하게 되어 중이 제 머리 깎는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를 구한다.

1984년부터 시작한 년차 총동창회는 학술대회와 병행했다. 공부하는 서울의대 인임을 자랑하고 우리 동창들의 Academic Prominence를 과시하고자하는 욕심도 있었다. 현실적으로는 당시 얻기 힘들었던 IME Credits를 자체 해결하고 동창회 참가경비를 일부를 Business Expense로 tax-deductible 되는 이점도 있었다.

Okonowoc, WI에서 시작한 후 30년이 되는 금년 학술대회의 중요한 theme은 최선의학소견, 나이 들어가는 동창들에게 도움되는 의학지식, 그리고 앞으로 학



술대회가 나아갈 길이었다. 동창회원 반 이상이 은퇴해서 CME credit 필요성이 줄어들고 건강문제로 참석 못하는 회원이 많아졌다. 고로 이번에는 학술대회를 이틀로 줄였다.

지난해 9월부터 준비한 학술대회의 가장 큰 난맥은 CME credit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2010년 Sponsor 해준 Long Beach Memorial Medical Center에 부탁했는데 "No" 라는 대답을 받았다. LA운영회에서 말았던 교섭을 Baltimore 시는 학술위원장이 직접 교섭에 나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감독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서류도 상상 이상이였다. 그 덕분에 금년 강사들은 통상의 강의 초록 외에도 이력서, Educational Objectives of Lecture, Disclosure form을 작성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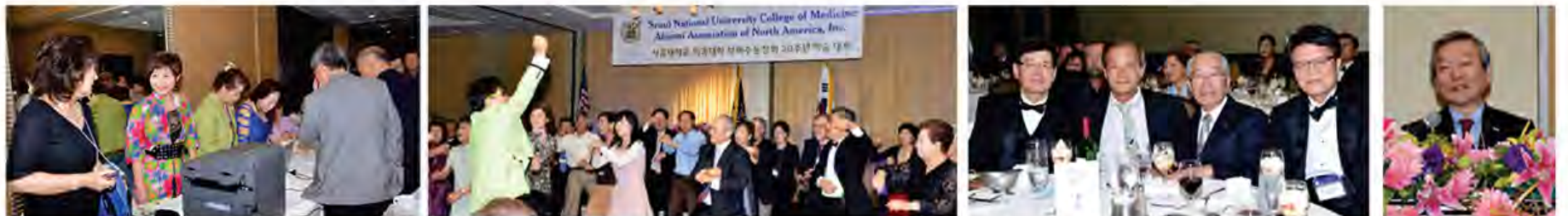
느라고 애들을 먹었다. 이 지면을 통해 강의료도 못 드리고 여행경비도 안주는 동창회를 위해 자비로 참석하셔서 좋은 강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술대회는 지난번 시계탑에 출간된 스케줄대로 큰 이상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한혜원(61), 이광선(65), 최영자(66) 동문들이 고참으로 학술대회 분위기를 끌어 주시고, 서울서 오신 연사로는 정희원(75) 병원장, 강대회(87) 학장, 문신용(74), 김광현(72), 방영주(79) 서울의대 교수진, 또 김일영 회장을 축하하기 위해 sign-up한 71년 졸업 강사진들: 민양기, 김영태, 강유구, 조세진. Unique한 강사진은 이성길(71) 동문의 Better Half인 송원오 Michigan State 교수, 김창구(71) 동문의 아들 Benjamin Kim, 이성춘(70) 동문의 아들 Louis C. Lee, 조세진 동문의 Kansas University Fellowship 제자 황도영(83) 동문이다.

학술대회 일주일 만에 Maximum CME Credits 8.75가 이메일로 59명에 Issue 되었고 이 뒤에는 250 페이지에 달하는 Application form을 종합하고 편집한 사무장 Mrs. Jamie Kim의 수고와 Registration form과 Evaluation form을 제출해주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줄어든 참가인원과 Contribution/ Donation, CME credit 필요성 저하, 도를 넘치는 강사진의 희생요구, Aging Membership trends를 직면해서 우리가 가야할 길은 어디일까? 그만 두자니 아직 젊고 또 아쉽고, 제대로 하자니 힘도 모자라고. '주어! 어디로 가시나이까.' 동문들의 현명한 의견을 동창회 사무실에 제출하셔서 다음 이사회에서 토의하게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71년 동기들께 감사드립니다. - 학술위원장 조세진(71) 보고



왼편에서 부터; 등록을 하는 동문들, 강남스타일 댄스를 주도하는 백승원 동문, 문대옥 전회장 서인석 동문 강신호 명예회장님 김일영 회장, 축사를 하는 정희원 병원장

### 2012-2013 제2차 이사회 공고

2013년 5월 18일(토) Tele Conference를 이용 LA와 NJ에서 동시에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시: Saturday, May 18, 2013  
CA - 4:00 PM  
NJ - 7:00 PM

장소: JJ Grand Hotel, LA, CA  
Double tree Hilton Hotel, Fort Lee, NJ

### 2013년 대뉴욕지부 '이규용(41)배' 골프대회

2013년 6월 5일 (수요일) 뉴저지 Hillsborough에 있는 Royce Brook GC에서 '이규용 배' 골프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동문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Wednesday, June 5, 2013  
11:30- 12:30 Registration and Lunch  
1:00 PM - Shotgun Start

장소: Royce Brook Golf Club, East Course  
201 Hamilton Road, Hillsborough, NJ 08844



# 동문동정 및 시부소식

## 2013년 남가주지부 선후배의 밤 행사 보고

남가주지부 선후배의 밤 행사가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약 150여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LA Oxford Plaza 호텔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만찬후 전경배(75) 현회장, 전희택(64) 이사장, 김일영(71) 현 미주동창회장의 말씀에 잇달아, 고용규(73) 전회장에 감사패를 증정하고, 2009년 후 개정된 남가주지부 회원명부를 배부한 다음 최광휘(76)동문의 사회로 모임이 시작되었다.

두 명의 의대학생에게 anonymous doner의 아름다운 장학금 수여후 가진 여흥 순서에서는 미세스 고용규의 바이올린 연주, 매직 쇼, 밸리 댄스 등과 상품타기 여흥은 전 참가자를 흥분시켰고 역시 마지막 절정은 말춤(pony dance) 강의와 경연으로 대상은 김익창(56) 동문이 차지했다.

귀가 중에 예민하신 분은 fullmoon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날 이었다.

## 15회 동기 소식: 심영보(61) 동문 합춘대상 수상

심영보(沈英輔) 동문이 지난 3월 26일 모교동창회 2013년도 정기총회(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영예의 “솔춘대賞(사회공헌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날에 이 상을 받은 15회 동기 회원중에는 김용일(2008년, 학술연구부문), 김진호(2009년, 의료봉사부문), 조두영(2012년, 학술연구부문) 군 등이 있습니다.

## 김승태(63) 동문 소식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는 김승태(63) 동문이 지난해 말 하와이 신임 주지사, Neal Abercrombie의 지명과 주 상/하의원의 인준을 받고 주지사실, 주법무부, 재정예산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로 활동할, 새로 설립된 주헌법기구인 Hawaii Health Authority에 commission member (total 9 members including ex-state judges, senator, ex-Insurence commissioner, etc.) 5년 임기로 주지사 발령을 받았다.

김동문은 새의료보험제도, 의료정책수정 및 수립 등을 총괄하여 할일이 많지만 하와이 주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조금이나마 기여 할 수있다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되어 수락 했다고 전해왔다.

김동문은 하와이대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직에서 은퇴하여 명예교수로 교육일선에서 물러났고 지난 6년간 호놀룰루에서 The Center for Mental Health and Law의 director로 일해왔다.

**피아노 독주** - 플로리다에 거주하시는 한용현(48) 선배님의 부인 박경희 여사 (서울음대 57졸)께서 지난 4월 8일 Florida Palm Beach에 있는 Devonshire Music Hall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하셨습니다. - 노용면

## 한창규(81) 동문 합춘학술상금 1만달러 동창회에 쾌척



2012년도 제16회 합춘학술상 중 합춘의학상을 수상한 한창규(81)동문이 수상 상금 전액 1만 달러를 미주동창회에 기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SNUCAA Academic Scholarship Fund (Hahn, Chang Gyu fund)  
I designate this donation to Academic scholarship for senior clerkship/externship in USA one student per year thru Green project and one alumni under residency/fellowship for Annual Convention attendance under the direction of Research and Fellowship Chair until fund run out.

Maybe my donation this time could be a seed for others' participation in the future.

## 별세하신 동문들의 명복을 빕니다.

### 장석철(48) 동문 별세



1948년에 졸업하신 장석철 동문의 장례를 2013년 3월 9일에 필라델피아에서 드렸습니다. 함흥에서 1923년 출생하시고 서울 대학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를 마치고 1953년에 도미하여 워싱턴 대학에서 해부과 생리로 PhD, MD Anderson병원에서 Cytopathology 부교수, 필라델피아의 Hahneman 병원에서 Cytopathology 주임교수로 봉직 하셨습니다. 가족으로는 부인 Dr. 김경숙과 두 딸 Pearl과 Grace가 계십니다.

### 이형모(49) 동문 별세

장기이식 외과의 pioneer 이시며 뛰어난 수술기, 고결한 인격과 medical ethics로 만인의 존경과 사랑 받으시던 이형모 교수님이 지난 3월 24일 영민 하

### HYUNG M. LEE Obituary:

Dr. HyungMo "H.M." Lee, 86, died March 24, 2013, in Richmond, VA. Recognized internationally as a pioneer in organ transplantation, Professor and former Chair of the Division of Vascular and Transplant Surgery at the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Medical Center, and past president of the American Society of Transplant Surgeons. Memorial service at 11am, Saturday, April 6, St. Stephen's Church, Richmond, VA. Memorial donations may be made to MCV Foundation, PO Box 980234 Richmond, VA 23298-0324, for the Dr. H.M. Lee Memorial Fund. Published in The New York Times on March 31, 2013 MCV transplant pioneer Hyung M. Lee dies. From 1973 to 1994, Lee led transplant program at MCV. Richmond Times-Dispatch Transplant surgeon Dr. Hyung Mo Lee, who from 1973 to 1994 led the organ transplant program at the Medical College of Virginia, was known for his high ethical standards, surgical skill and compassion.

I never saw Dr. Lee get angry, said Dr. Anne King, a professor of medicine and surgery at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he medical school was known as the Medical College of Virginia during Dr. Lee's tenure. You could see, after you got to know him a little bit, that he would get impatient perhaps with some of his less skilled assistants, said King, also medical director of the kidney transplant program at VCU. He would suggest, very kindly, that you go have lunch. If you said you already had lunch, he would say, No, that's OK, you go have lunch, King said. Dr. Lee, 86, of Henrico County, died March 24 after a long illness. Family members said he had suffered strokes in recent years. Friends and colleagues remembered him as a pioneering surgeon who, with his mentor, the late Dr. David M. Hume, helped propel the organ transplant program at MCV to national prominence.

When Hume died in a plane crash in 1973, Dr. Lee took over as transplant program chairman. Dr. Lee also was remembered as a national leader in developing organ

## 노태현(92) 동문 소식

가정의학 전문의를 마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올해로 12년째 관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색적인 노태현(92) 동문(앞줄 맨 오른쪽)이 내년 2월까지 맨하탄에 있는 예시바 법대에서 교환교수 자격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노 동문은 오는 6월 5일 개최되는 '이규용 배' 대뉴욕지부골프대회에 참석하여 선후배들께 인사도 드리고 처음으로 골프에 입문할 예정이다.



## 서울대학교 미주 재단 의과대학 지원 기금현황 보고

김용재(66) 동문이 50만 달러 약정 30만 달러를 출연하여 모교 학생을 지원할 장학기금으로 "김용재 장학기금" 을 설정 하였습니다.

김용재 동문은 뉴욕 브롱스에서 저명한 산부인과 의사로 개업하였으면 수년 전에 은퇴하여 현재 라스베가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 동문은 Albert Einstein 의대 faculty로 15년 근무, New York State National Guard 군의관으로 6년 근무 하였으며, 의대 동창회, 미주 한인사회, 기타 사회단체 등등에 봉사 하였으며 모교로부터 2006년 "장한 의대인"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미 동부(North East)에 거주하는 익명의 동문이 "이안나 장학기금" (Anna Lee Scholarship Fund) 10만 달러 약정 25,000 달러를 출연 하였습니다. 어려운 시절 길러 주시고 공부시켜주신 모친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모친의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설정 하였습니다.

의과대학 지원 기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기태(58)-노점옥 장학기금 (50만 달러 약정, 40만 달러 출연)
- 이흥표(64) 순환기내과 연구 및 교육기금 (30만 달러 약정, 10만 달러 출연)
- 김용재(66) 장학기금 (50만 달러 약정, 30만 달러 출연)
- 김익신(66) 핵의학과 학술 기금 (25만 달러 출연)
- 강창홍(71) 통증연구지원금 (15,000 달러 출연)
- 익명 이안나 장학기금 (10만 달러 약정, 25,000 달러 출연)
- 익명 장학기금 (생명보험 20만 달러 유증)

미주재단에 기부한 의대 동문 및 액수 (단위 US Dollars): 박용화(58) 100 / 이운순(58) 100 / 김기태(58) 400,000 / 김은섭(59) 1,000 / 최지원(61) 6,000 / 이희백(61) 10,000 / 최선덕(61) 630 / 강세부(61) 450 / 장인호(63) 3000 / 이흥표(64) 100,000 / 임현재(65) 1,000 / 김익신(66) 250,000 / 홍건(70) 500 / 조변선(71) 1,000 / 강창홍(71) 15,000 / 이성호(72) 500 / 익명 25,000 / 24회 동기기 8,900 / Heart Image Technology 190,000 상당 image Management System 기증.

**장학금 지급 현황** - 이희백 장학금은 유혜리, 고아령 두 학생에게 각각 5,000 달러씩 지급 되었고, 금년도 김기태 장학금 1명 5,000달러, 김용재 장학금 2명 각 5,000 달러가 지불될 것이며, 김은섭-임현재 하기연수 지원금(2,000 달러)은 서울대 발전기금에 송금 되었습니다. - 서울대 미주재단 이사장 이만택(58)

셨습니다. 동문중에 조사 쓰실 분이 많을줄 아는데 Online에서 발췌한 Obituary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부

### 정희영(57) 동문 별세

오랫동안 펜실바니아 주에서 산부인과를 전공한 후 후로라 주에서 은퇴생활을 하던 정희영 동문께서 작년 초봄 사망하셨습니다. 50년전 내가 캐나다 뉴파운 드랜드 주의 법의책임자로 일할 때 정동문을 처음 알게되어 약 8년 동안 아주 가까이 지냈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인 헬렌여사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는 바이다. - 노용면

### 우병혁(60) 동문 별세

오하이오 주에서 방사선과를 전공하던 우병혁 동문께서 지난 3월에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transplant policy, serving from 1984-85 as president of the American Society of Transplant Surgeons and during that tenure pushing for the 1984 National Organ Transplant Act, which established a system for organ allocation and distribution. He was a remarkable master surgeon, educator, incredibly ethical man, said Dr. Marc Posner, a professor and chairman of the Division of Transplantation Surgery at VCU. He was there at the dawning of transplants in this country. He was clearly an icon in American surgery from the point of view of vascular and transplant surgery, said Posner, also director of the Hume-Lee Transplant Center at VCU. Dr. Lee served from 1979-80 as president of the Southeastern Organ Procurement Foundation, the organization that gave rise to the 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 Dr. Lee, born in 1926 in Tanchon, Korea, came to the United States after earning a medical degree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in 1949, just before the start of the Korean War. He said in an interview years later that there were no jobs and the medical system had broken down in Korea. A friend encouraged him to relocate to the U.S. He did so in 1953, said his wife, Dr. Kyung Ok Lee, a retired pediatrician. At that time, it was so difficult to travel around. Even from Korea, you could not get in or get out, she said. We met at MCV.

I was in pediatrics. He was in surgery training. Dr. Lee's son, Dr. Bennett Lee, said his father influenced his own choice of medicine as a career. My grandfather was a physician as well, so it's one of those family traditions, I guess, said Bennett Lee, an assistant professor of medicine in the Division of Internal Medicine at VCU. When Dr. Lee retired from VCU in 1997, he wasn't idle for long. In 1998, at age 72, he enrolled in law school at the University of Richmond, the oldest of 472 students there at the time. In addition to his wife and son, Dr. Lee's survivors include a daughter, Margaret Mikyung Lee, an attorney in Washington. The family will hold a private service today. A public memorial service is planned for 11 a.m. April 6 at St. Stephen's Episcopal Church.





# 2013 Annual Convention Non CME Report

최 광 휘 (76, 남가주)

금년 Non CME 행사는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연사들이 참여하여 신선함을 주었다. 모든 연사들이 각자 맡은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 몇몇 주제는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제였다.

### 3월 15일 금요일

첫째 연사로 강의를 하신 70년 졸업 홍콩철 동문의 “중독과 회복의 체험기”는 많은 청중의 눈을 뜨게 하는 감동적인 내용이었다. LA에서 길갈미션을 통하여 마약에 중독된 환자들을 도와주며 겪은 경험을 이야기 하리라 생각했던 나의 추측은 “내 자신이 마약 중독자다”라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 할 것이라는 첫마디에 약간 놀랐다. 처음 담배를 피기 시작하여 술, 마약, 도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 수없이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또다시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힘겨움, 그에 따른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도 빠지지 않고 눈시울을 적시면서 이야기 하는 동안 내내 나 자신도 끝없이 울고 있었다 한마디로 파워풀한 강의였다.

그 뒤로 김영애(김성환 동문부인)씨의 “수필은 무엇인가” 또한 많은 청중들의 마음에 와 닿는 강의였다. 아이들이 자라서 집을 떠난 후 남편은 병원일로 바빠 대화할 대상이 없어 혼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수필을 쓰기 시작했다는 Mrs. Kim은 수필은 누구나 쓸 수 있다며 마이크에 다가가 속삭이듯 시냇물이 흘러가는 듯 한 목소리로 준비된 수필을 읽어가며 마음에 와 닿는 우리 모두가 항상 겪는 이야기들을 간단하면서도 산뜻한 표현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빼앗아갔다 특히 수필 “우동”은 듣는 이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다.



한혜원 동문의 “Anyone can enjoy opera”는 준비해 갖고 오신 마리아 칼라스의 Tosca를 시작으로 DVD를 관람하면서 그 장면 장면의 배경과 내용을 일일이 소개해 주시는 한 동문을 보고 있노라니 자기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하던 선물을 받은 소녀가 너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인상을 연상시켰다.

40년 전부터 듣기 시작한 오페라를 들으며 오페라가수들의 음성을 통해 인생살이의 슬픔과 기쁨, 사랑의 아픔과 환희 등을 공감하면서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고 있다며 오페라 애찬론을 펼치셨다.

이덕순 동문의 “웃음동산”은 인생은 슬픔을 통하여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웃음을 통하여 성숙되어 가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 어떻게 웃음으로 긴장된 분위기를 편안한 분위기로 바꿀 수 있을까?

한 가지 놀라왔던것은 1970년부터 “웃음동산” 수집된 자료와 Bindful 한 내용을 접했을때 그 정성 노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 또한 남을 웃길 수 있는 자질은 타고 난것이 아니



라 무한한 노력의 결과인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한석수 동문의 “나의 투병기”는 또한 나의 눈시울을 적시게 한 강의였다.

Non CME 일정표를 준비하는 도중 한석수 동문께 전화를 걸어 강의를 해주십사 청을 했을 때 약간 주저하시면서 꽤히 승낙을 하셨다. 며칠 후 내게 전화를 걸어 자기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계탑에 게재된 정구영 동문의 “나의 투병기”를 접했었기 때문이라며 본인 또한 다른 동문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승낙을 하셨다.

모든 치료를 했지만 결국은 간이식 밖에 없다는 의사의 마지막 조언으로 간이식 순서를 기다리며 지칠대로 지친 몸을 끌고 뒷마당에 앉아 나무사이로 돌아다니는 다람쥐, 꽃망울이 피지는 순간, 개미가 부지런히 흙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살고 싶다는 의지로 발버둥을 치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더 이상 생명의 연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후 그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나약함과 겸손함을 듣는 이로 하여금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강의였다. 이것으로 오전 강의는 마칠 수 있었다.

오후시간에 첫 번째 강의내용은 배정웅 선생님의 “시 쓰는 즐거움”이었다 월남전 참전 전부터 문화활동을 한 배시인은 수년간 대북방송 원고도 집필했고 남미를 거쳐 미국에 정착했는데 그동안 겪은 생생한 체험을 시로 승화시키면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왔다고 한다.

시란 자세히 관찰하고 많이 생각하면서 잘 다듬어진 말로 남을 감동시켜야 하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의 난해한 현대시기에 대해서는 한과도기적 현상으로 보고 머지않아 시의 본 영역인 서정시 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늦깎이 점심들을 하고 오후 30분이나 늦게 시작하는데다 배정웅 시인의 구수한 강의로 30분밖에 시간이 없었던 “조사 쓰기”에서 이원택 동문은 현대조사가 어려운 글에서 쉬운 글로, 어두운 글에서 밝은 글로 바뀌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고인의 일생 중에 재미난 에피소드나 특별한 업적 한두 가지를 부각시키고 고인이 평소 좋아했던 시나 노래, 만남 또한 성경구절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고 조사는 기교나 형식보다 쓰는 사람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쓰는 것이 비결이라고 했다.

조세진 동문의 “Following Van Gogh’s Foot Print in France”에서 반고흐는 그의 일생 37세 중에서 1886년부터 죽을 때까지 (1890) 4년간을 프랑스에서 보냈다. 처음 정착한 곳은 파

리 교외의 Montmartre에서 일 년 정도 시간을 보낸다. 그때 고흐의 그림의 특징은 Millet와 비슷한 그림 스타일에서 impressionist로의 전환점에 서있었고 그 후 고갱과 뜻이 맞아 Provence Arles로 옮겨 미술학원을 시작하였다. 이때의 그림의 특징은 색깔이 선명하고 화려한 색깔을 많이 썼으며, 그림의 주제는 주로 정원, 꽃 그리고 자화상이 주로였다. 그 후 본인이 정신병이 있다는 사실을 이때쯤 알았으며 병 치료를 위해 다시 파리의 근교 Auvre-Sur-Oise로 옮겨 이곳에서 일생의 마지막을 보냈다. 이때 그림의 특징은 그림에서 선이 흔들리는 특징이 있다 조동문은 반 고흐의 죽음은 자살인가 아니면 타살인가 아직도 결론을 못내고 있다는 말로 강의를 마쳤다. 너무 좋은 강의였다.

### 3월 16일 (토요일)

배성호동문의 “치매와 영성”은 Cognition과 Spirituality를 한 영역으로 묶어 치매의 방지에 대한 특히 영성과의 관련으로 치매예방에 대해 강의 하셨다.

치매에 관한 최신 신경과학적 데이터를 소개하면서 근래 발표된 치매방지 혹은 지연시키는 방법과 특히 최근 발표된 신경 신학적 데이터를 강의하셨다. 또한 치매방지를 위한 다음의 7가지 건강관리 원칙을 제시하였다.

- 1) 움직여라.
- 2) 머리를 써라.
- 3) 배워라.
- 4) 어울려라.
- 5) 놀아라.
- 6) 일하라.
- 7) 믿어라.

이중 7번째의 믿으라는 중요성을 강조한 강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내용이었다.

이형열 동문의 “스마트폰 스마트하게 활용하기”는 그야말로 Technology의 정수였다. 스마트폰 기능이 너무나 다양하여 60만개의 application이 있는 상상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iPhone으로 매일매일 체중의 변화를 체크할 수 있고, 또한 Pod cast를 이용하고 싶은 방송을 녹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소개하셨다. 스마트폰으로 장소추적이 가능함으로써 그에 따른 기능이 보통의 핸드폰과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Android Phone과 iPhone의 차이점을 구분 설명해준 Informative한 강의였다

홍성진 동문의 “의료봉사활동”은 15년간의 30여번의 해외의료봉사를 다양한 나라(Amazon Afghanistan, Africa, North Korea, Haiti, etc...)를 방문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경험을 직접 듣는 이로 하여금 느끼게끔 하는 강의였다.

그동안 수집했던 자료를 영화한 한 것을 보여주며 직접 봉사활동을 더 가깝게 느끼게 봉사활동시 입었던 스카프와 가운을 입고 설명하신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첫 번째 봉사활동

시 비행기 사고로 봉사활동단을 픽업하기로 되었던 조종사를 비행기 추락 사고로 잃었다고 말할 때 홍동문의 눈시울이 적시는 것을 느끼며 그간 어려운 봉사활동을 많은 시련을 극복하면서 꾸준히 해나가는 의사의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봉사활동을 통해 홍동문은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행하며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며 끝을 맺었다.

나두섭 동문의 “사진 잘 찍는 방법”에선 사진기의 종류와 구조 lens 노출 사진촬영방법, 사진 구도잡기, 프린트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한 언급으로 사진 초보자들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소개한 강의였다.

이어서 오후 강의중 첫 번째로 이어진 손영진 동문의 “평범한 은퇴생활”에서 손동문은 은퇴란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지 숨어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다란 전제후 언제 은퇴해야 될지, 또한 재정적, 건강의 바탕이 있어야 되며 본인이 즐기는 취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적절한 은퇴의 장소는 따뜻한 곳이어야 하며, 대중교통수단이 있어야 되며 주위친구, 가족들이 근처에 사는 곳이 좋은 은퇴 장소로 추천하셨다.

손동문은 또한 요시이는 수석(水石) 모으기로 취미생활을 즐기시며 무거운 돌을 어깨에 메고 돌아다니는 바람에 양쪽 어깨가 까져 피가 터지는 지경이 되어도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마냥 행복하다고 하신다.

뒤이어 이홍표 동문의 “재미있는 여행”에선 흔히 우리가 접하는 여행보다는 일식을 보러 East Island로의 크루즈 여행, 남태평양에 있는 Paul Gauguin이 살았던 Marquesas Islands Cargo - passenger ship인 Aranui로 여행하면서 trekking을 같이 동반했던 여행 또한 동문들과 Patagonia에 가서 trekking 하는 여행 등을 각 지역의 특징을 슬라이드와 함께 소개하면서 같이 접한 역사의 해석은 듣는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강의였다.

최광휘 동문의 “How to buy wine”은 말 그대로 싸게 좋은 와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복잡한 French wine label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덧붙였으며 California wine label과의 차이를 식별했다. 와인을 고를 때 무엇보다도 Vintage Year의 중요성을 강조 했으며 Everyday wine으로는 \$10 미만의 와인을 권했고, 많은 와인 테스트를 함으로써 본인의 취향에 맞는 와인을 찾아 즐기라고 권했다.

PS: 3월 15일 첫째날 홍콩철(70) 동문의 Drug Addict Rehab Program 강의에서 홍 동문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동을 받은 동문들께서 도네이슨과 함께 격려를 해주었다.

다음은 도네이슨 해주신 동문들의 명단이다.

- 안병일(69) 100, 김홍서(69) 100
- 오상현(71) 100, 강태수(71) 100
- 박진국(71) 200, 김일영(71) 1,000
- 황동하(71) 100, 김성환(71) 200
- 조세진(71) 500, 김유식(71) 200
- 민양기(71) 100, 강유구(71) 100
- 김창구(71) 100, 홍성진(71) 100
- 문대옥(73) 100

# Post-Convention 미서부 Grand Circle 여행기



박진국 (71, 남가주)

제30회 학술대회를 LA에서 끝내고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의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여행은 삼호관광에서 나온 버스에 53명 서울의대 동문과 가족이(한국에서 온 8명 포함) 3대 국립공원과 여러 국립유적지 그리고 Navajo Indian 유적지를 도는 소위 Grand Circle Tour로 모두에게 기억에 남은 여행이었습니다.

축복 받은 듯 6일간의 날씨는 청명하였습니다. 첫날 아침에는 안개 낀 LA를 지나 새파란 하늘의 사막을 지나며 라스베가스로 향했습니다. 도중 Barstow에 있는 Sizzler에서 점심을 하면서 준비한 와인으로 앞으로의 여행에 촉매를 들었습니다. 준비해간 와인은 매일 밤 호텔 방에서 몇 명씩 어울려 회포를 푸는데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첫날 오후 도착한 라스베가스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저녁 시간 올드타운 방문은 또 다른 라스베가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 메인 스트리트에서 열리는 전광지붕 쇼는 새로웠고 전광관에 보이는 LG기술 협찬이라는 작은 글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문들은 Wynn Hotel에서 공연중인 Le Reve 쇼를 관람했는데, 너무 무대와 가까운 앞자리에 앉아서 여러 차례 물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둘째 날 새로 생긴 후버 댐 다리를 거쳐 Grand Canyon South Rim을 향했습니다. 전날 라스베가스에서 합류한 10명의 63년 졸업 동문들은 "김태수와 그들"이라는 정말 일류 Entertainers였습니다. 김태수 동문의 끝없는 유머, 농담, 시 낭송, 요리감좌 그리고 Sewing 강좌를 들으며 버스안은 끝없는 웃음바다였습니다.

오전 시간에 소수의 동문들은 Grand Canyon Airplane Tour를 즐겼고, 그 외 동문들은 IMAX를 관람하였습니다. 광활한 그랜드 캐년을 짧은 시간 동안 즐길 수밖에 없는데 모두들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랜드 캐년 여행의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좀 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activity 즉, Hiking to Colorado River Bed, River rafting 또는 North Rim Forest Hiking을 꼭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후 Yuvapai Point에서 내려 걸으면서 눈과 사진도장을 찍고 나서 Desert Viewpoint를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와우~와우~" 탄성을 지르며 Canyon 장관에 즐거워했습니다. Flagstaff로 가는 길은 Little Colorado River와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텅 빈 Navajo 인

디언 노점상과 도로가의 slum 같은 주택들이 그들의 가난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는 길의 후반부는 눈 덮인 Mt. Humphrey(아리조나에서 제일 높은 산)를 보면서 Scenic driveway를 따라 Wupaki Indian National Monument를 거쳐 sunset crater 관광을 버스에서 했습니다.

세째날은 항상 가보고 싶었던 East Arizona를 향해 투어버스는 황량한 벌판을 하이웨이 40번을 따라 Santa Fe Railway를 달리는 기차와 함께 약 두 시간여 달려 Petrified Forest National Park와 Painted Desert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관광하였습니다.

세째날은 항상 가보고 싶었던 East Arizona를 향해 투어버스는 황량한 벌판을 하이웨이 40번을 따라 Santa Fe Railway를 달리는 기차와 함께 약 두 시간여 달려 Petrified Forest National Park와 Painted Desert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관광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들린 Petrified Forest는 250MYA(Million Years Ago) 즉 25억 년 전 열대림이 사라지며 지하에 묻힌 후, 지각의 Silica Water가 나무에 스며들어 화학작용으로 수정 결정되어 보석형성을 한 것 입니다. 이곳에는 길고 큰 나무와 작게 잘라진 석회석 나무들이 즐비하게 널여져 있었고, 이들의 강도는 상당히 높고 무게 또한 대단하며 그 단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이 공원에는 작은 공룡-초기 Amphibian 화석도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Pueblo Indian Adobe를 Inn으로 만든 Kachina Point에서 적황색 아름다운 Painted Desert는 O' Keefe의 그림 같았습니다. 황량한 평원에 이처럼 경이로운 목화석, Badland가 아름다운 풍경화처럼 숨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곧이어 Canyon de Chelly(캐논 데 체-나바호어로는 Canyon of Stone Canyon)를 향하였습니다. 점심은 Chinle라는 나바호 타운 입구에 있는 서브웨이에서 픽업해 야외에서 먹고 Spider Rock Overlook으로 걸었습니다. 길이가 16km 되는 캐논에 높이가 270m(15층 높이)나 되는 촛대 같은 두 바위가 양쪽이 300m나 깊은 적색 사암벽 안의 골짜기에 잠입하게 서 있어서 나바호 최대 요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1864년 Carleton 장군과 Kid Carson

대령(서부 개척사에서 가장 popular한 trapper였음)이 6개월간 정규공격이 아닌 초토화 작전으로 이 캐논 동서 양쪽으로 접근, 쫓기는 나바호 300명이 Spider Rock 옆에 있는 요새 꼭대기에서 굶주림을 참지 못해 결국 미국 군에 항복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9천명의 나바호들이 470km나 떨어진 Bosqueredondo(동근 숲)로 4년간 유치되었다가 1/3이 죽고 다시 Sherman 장군의 배려로 전보다는 작아진 오하이오 주 만한 사이즈에 보호구역으로 돌아와 현재는 35만의 인구가 커졌다고 합니다. 인디언 멸망존재사를 이 유적지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다른 point는 White House Rock으로 절벽 밑에 인디언 거주지가 있는데, 붉은 Sandstone에 흰색 줄 문양이 위 아래로 그어져 절벽에 잘 조화된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반 수렵족인 나바호는 호전적이지 않은 반면, 손재주는 좋고, 장사에 능하여 세계 최고급에 달하는 Wool Blanket, 도자기 등을 생산하여 여러 부족이 추장 없이 자유롭게 살다가 백인군대가 원하는 통치계획에 위해 보호구역으로 밀린 것이었습니다.

Visiting Center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Din(Navajo는 자신들을 이렇게 부른다)이 미군 대표들과 평화조약에 서명하는 그림과 두 권의 책자 - Blood and Thunder, Din-가 나비호의 과거와 현재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Page에서 시작한 네 번째 날, 오전에는 Lake Powell의 Antelope Canyon 수로에서 보트를 타고 한 시간 반 관광하였습니다. 퇴적암으로 되어 있는 적색과 흰색의 양쪽 절벽사이로 보트가 지나가는데 점점 수위가 좁아지면서 경치는 더욱더 훌륭했습니다. 이곳에서 한 30분 이내 콜로라도 강이 만든 Horseshoe Band를 0.4마일 걸어 들어가 구경하였습니다. 절벽이 무섭게 깊어 내려다보기가 무척 두려웠지만 그 경치만큼은 말할 나위 없이 훌륭하였습니다. 사진으로는 실재를 상상할 수 없는 경관이었음을 절감했고,

Canyon De Chelly와 함께 Horseshoe Band 관광은 이번 여행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오후에는 유타 주를 향하면서 Monument Valley에 들려 Van Tour를 Navajo 인도 하에 한 시간 반 정도 하였습니다. Mittens, Buttes, 3 Sisters, 그리고 Totem 등 거대한 Sand Stone의 조형물들을 즐기며 간단한 인디언들의 노래도 들었습니다. 이곳을 세계에 알린 사람은 헐리우드 무비 디렉터인 John Ford 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기념품으로 Monument Valley Poster를 구입하여 집에다 붙여놓았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지나 Moab, Utah에서 넷째날밤을 보내고 여행의 다섯 번째 날에는 Arches National Park을 세 시간 동안 방문하며 Courthouse, 3 Windows, Devils Garden의 landscape arch를 즐겼습니다. 태평양과 대륙지각 층이 밀려 만나 바다 밑이 올라와 사암들이 소금과 물에 의해 수직, 수평으로 잘리고 변형되어 arch들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눈 덮인 La Sal Mountain이 보이는 Delicate arch 관광은 시간상 아쉽게도 포기해야했습니다. 이후 하이웨이 70번과 15번을 지나 라스베가스에서 저녁때 도착해 일부는 MGM 호텔의 KA 쇼를 관람하고 바쁜 여행 일정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LA로 돌아오는 날 M 카지노에서 조식 뷔페를 즐기고 그곳에서 10명의 63년 졸업 동문들과 작별을 했습니다. 오는 길에 Barstow Outlet에 들려 짧은 쇼핑도 즐겼습니다.

함께 여행을 인솔한 삼호관광 가이드 Mr. 윤에 의하면 "이 긴 여행, 버스 안에서 잠 안자는 관광객들은 처음 보았습니다." 라 할 정도로 많은 동문들의 입담은 이번 여행을 더욱더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염극용(60), 정정수(62), 김태수(63) 외 모든 동문들이 몇 번씩 마이크를 잡고 자기소개, 장기자랑, 농담과 각설, 인사를 계속하며 버스 안은 끊임없이 웃음바다였습니다. 김태수 선배님의 개똥철학(Philosophia Carnis Fecalis)을 배웠고, my way of Happiology를 추구한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여행기간 내내 여러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보여주시는 놀라운 재능은 서울의대 동문으로서 자부심을 재인식 하였고, 앞으로도 동문모임과 여행에 꼭 참가하여 Happiology를 추구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에 참석하신 모든 동문과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紙上法醫



# 의처증

노용면(55, 대뉴욕)

중년 후반기 여자의 시체가 그녀의 침대에서 발견되었다. 그녀의 남자 친구가 하루 종일 전화를 걸어 그녀를 찾았는데 연락이 안 되어 결국 경찰에 보고한 것이다. 현장을 조사한 수사관의 보고서에는, 아파트 문이 잠겨 있었고 방 내부에 흐트러진 데가 전혀 없었으며 별로 의심스러운 증거가 없다고 적혀 있었다.

의심이란 말은 아주 주관적인 표현이며 수사관의 예민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시체에 아주 커다란 상처가 있거나 같이 꽃혀 있지 않으면 별로 의심스럽지 않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죽음이 의심스럽다고 하기도 한다.

몇 시간 후 법의학관실에서 그 시체를 부검하니, 범죄의 증거가 곧 발견되었다. 그것은 목 졸려 죽인 살인 케이스였다. 그녀의 목 앞쪽과 옆쪽에는 반달 모양의 손톱자국이 여기저기에 있었다. 손톱자국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으니 가해자가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를 추측하기는 힘들었다. 목에 있는 설골(hyoid bone)과 갑상연골(thyroid cartilage)이 골절되어 있었다. 눈 결막에는 점상출혈들(conjunctival petechial hemorrhages)이 많이 있었다.

이것은 손으로 목을 졸라 질식케 한

아주 전형적인 교살(manual strangulation) 케이스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교살 예들에서 이러한 소견들이 똑똑히 보이지 않을 때가 흔히 있는데, 그럴 때는 사건에 연관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진단을 내려야 한다. 소위 전형적인 교살사의 부검소견이 있어도 그것이 교살이 아닐 수 있고, 그런 소견만 가지고 만사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질식사하는 그 수사가 어려울 때가 흔히 있다.

그녀의 질속엔 신선한 정액이 많이 들어 있었다. 음부에서 의심스러운 탈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았고, 강제 성폭행으로 생겼다고 보이는 상처는 없었다. 질속에 있는 정액을 검사하니, 그것이 혈액형 A의 남자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녀의 혈액은 O형이었다. 80% 정도의 사람이 정액, 침, 땀 등에서 자신의 혈액형 물질을 갖고 있고, 나머지 20%는 그렇지 않다. 전자를 분비형(secretor)이라 하고, 후자를 비분비형(non-secretor)이라 한다. 그러니 가해자가 비분비형이면 그의 정액에서 혈액형 물질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다른 방법으로 그를 추구해야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혈액형을 갖고 있을 때 다른 방법으로 조

사를 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검사에 필요한 표본을 잘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혈액형 물질이 세균 또는 기타 이유로 파괴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리하여 가짜 음성반응(false negative result)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조사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의 남편은 심한 우울증(depressive psychopathy)으로 뉴욕시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 꽤 오랫동안 수용되어 있었다. 그들 사이엔 자식이 없었다. 그녀에게 가끔 찾아오는 남자 친구 하나가 있었다.

경찰이 우선 그 남자 친구를 심문했는데, 그의 진술은 다음과 같았다.

그녀의 시체가 발견된 전날 밤 그가 그녀의 아파트에 갔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 그가 그것을 받았더니, 전화를 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가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다. 그가 이리저리 설명하고 있었으나 저쪽에서 아주 화를 내는 바람에 겁이 나서 곧 거기서 떠났다고 했다. 그의 혈액형을 물으니 B형이라고 했다. 경찰이 그의 진술을 믿기로 했다.

한편, 그녀의 남편이 정신과 병원에서 실종되었다는 보고가 들어 왔다. 경찰이 그를 여기저기로 찾은 결과, 그가 후로리다 주에 있는 그의 먼 친척 집에 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후로리다 주 경찰이 그를 체포하고 간단한 법적 수속을 한 후 그는 뉴욕시에서 간 경찰에 인수되었다. 한편 형사 한 사람이 뉴욕시 공항에서 그가 도착하기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도착하자 형사가 그의 신원을 확

인하기 위하여 그가 갖고 있는 서류들을 찾아보니, 남미 어느 나라에서 발행한 군대 제대증이 나왔다. 그는 오래전에 남미에서 이민 온 사람이었다. 그 제대증에는 그의 혈액형도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O형이었다. 그것을 보고 혼란에 빠진 형사가 법의학관실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그 당시 우리 사무실엔 Rh 혈액형을 발명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Dr. Alexander Wiener가 근무하고 있었다. 그가 이 소식을 듣더니, 형사더러 용의자를 우리 사무실에 데리고 오라고 했다. 그의 혈액을 자기가 직접 검사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영장을 얻은 후, 그의 혈액을 검사했다. 그러면 그렇지, 그의 혈액형은 A형이었다. 위너 교수가 주장하기를, 군대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집단 혈액형 검사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20%정도에 이른다고 했다.

남편이 아무런 저항 없이 모든 것을 자백했다. 자기에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마누라를 남에게 빼앗기고 싶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증언거렸다.

References

1. Yong-Myun Rho: Death by Hanging and Strangulation. International Microform Journal of Legal Medicine, Volume 9, No.4 1974.
2. Yong-Myun Rho: Diagnosis of Asphyxial Deaths. Video Tape at the Library of the District Attorney, Bronx County, NY. (60 minutes) 1078.
3. 지제근, 송계용, 노용면: 병리학 원색도보 고려의학 1998.

## 검은 발(Pied noir)의 이방인

이수인(63, 뉴저지)

얼마 전 le Figaro에 "pied noir, 50년 후"란 장문의 기사가 있었다. 프랑스와 알제리 전쟁은 50년 후에도 감정적 매듭이 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란서 국가적 프라이드에 생생한 상처로 남아있고 쿿대 높은 불란서인들은 아직 알제리인들에게 침략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들 침략자들의 교만과 위선은 일본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다.

Pied noir는 불란서에서 알제리에 이주한 불란서 노동자와 농부, 또한 여타 유럽지역에서 온 이주민이 불란서 시민이 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됐다. Pied noir의 유래에 대해서는 이성이 있고 카사블랑카에 있던 미국인 기자가 던진 말이 널리 쓰이게 됐다는 얘기도 있다. 이들 pied noir는 알제리 전쟁이 끝난 뒤 불란서 본토에서 그들의 귀환을 그리 환영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 오랑(Oran)에 남아있던 수많은 이들 "white trash"들은 전쟁 중 학살을 당한다.

포도농장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까뮤는 유명세의 pied noir이다. 나는 까뮤를 좋아한다. 좋다기보단 그의 인생살이를 부러워 한다는 게 옳다. 나는 그의 맑은 문체 땀에 단 작가에 비해 더 많은 그의 저서를 읽었다. 내가 존경하는 것은 작가로서의 명철함과 지성인의 사회참여와 육체적 쾌감을 즐길 줄 아는 것이다.

일자무식의 스페인 계통 어머니가 유지해온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그의 성격은 맑고, 오랑의 행방한 햇살처럼 밝고 육체적이다. 그의 에너지에 차고 잘생긴 외모 땀에 여인들이 그를 사랑한다. Juliet Greco, Caderas들도 친구였고 샤프트의 여인 Beauvoir

도 연인이 되고 싶어 했지만 attractive 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중히 거절했다는 얘기가. 까뮤는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년지시 Don Juan의 편을 든다. 자기 체면을 차렸겠지, 나는 이것도 부럽다.

그는 회색빛 파리의 지성인 샤프트나 축축한 암스테르담의 습기 찬(la chute) 도시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샤프트와의 십년의 긴 우정 뒤에 헤어져 이념적, 정치적 적대 관계에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pied noir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 추측이다. 샤프트가 까뮤보다 7년 늦게 주어진 노벨문학상을 거부한 것도 pied noir 지성인에 대한 질투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이 적대관계는 경쟁적이었기 때문에 서로 반박하는 책과 paper pieces를 내면서, 이들은 훌륭한 저작물을 남기고 우리는 이것들을 즐긴다.

"Exile from algerie, homeless in Paris"는 까뮤가 한 말이다 그렇게 까뮤는 이방인 이었다. 까뮤가 노벨 상금으로 산 Lourmarin의 저택이 아니었다라면 그는 지금 구십구세의 나이로 생존했을지 모를 일이다.

몇 년전 고향인 예산에 들렀다. 공주에서 차동고개를 넘으면 곧 내가 보건소 근무를 하던 신양이 있다. 오십년이 지난 뒤 변한 것이 없다. 예산은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인지라 발전한 모습이 영 안 보인다. 골목길로 콧차버린 군청소재지엔 판 도시에서 보는 "버섯처럼 돋아난 아파트" 단지도 안 보인다. 금오산 연봉이 내가 기억속에 상상한 것보다 아름답지 못했다. 더 발전된 고향을 원했더가. 고향을 보는 쓸쓸함이며.

그것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

들을 보는 마음이다. 금오산 연봉의 그늘 속엔 우리가 하던 과수원이 있다. 이제 저 세상의 사람이 된 누이동생과 개미가 먹든 복숭아를 주워 먹고 술찌거미를 찍어먹든 기억은 생생하다. 모든 것은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

금오산 지나 / 향천사로 가는 길에 / 시냇물 차가운 물에 / 발을 담그면 / 봄의 람데뷔 / 그곳이 그림다.

메주와 꽃감이 주렁주렁 / 매달린 처마 / 겨울이면 / 눈에 덮인 / 장독대 / 그곳이 그림다.

밀짚 엮은 담장을 지나 / 골목길 가면 / 만나는 사람마다 안부를 묻고 / 정겨운 인사를 나누는 / 조그만 동네 / 그곳이 그림다.

변하지 않은 고향에 대한 낯설음이여.

들이켜보면 나의 미국 이주는 조류에 밀린 어촌은 정착이었다. 그리고 한 세월 지났다. 사십 여년이 지난 뒤 아직도 이 땅과 꽤 물려빠진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고국의 아저씨들은 우리를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언젠가 딸이 편지를 썼다. 아빠는 바쁘게 일을 하지만 많은걸 잃었어요. 이질사회에서 역류에서 헤엄치던 잔인한 시절에 대한 당연한 비평이고 언제부터인가 나는 딸에게는 딴 세상에 사는 이방인 이었다. 로스앤젤스에 살던 작은 아들에게 가까운 멕시코 방문을 건의했던 일이 있다. 월, 아빠는 바캉스 가서 무엇을 하지요. 골프나 치겠지요. 우리는 맥주나 마시면서 채팅을 하지요. 정중한 거절이다. 딱딱한 질문이나 대화나 어울림을 누가 좋아할까. 뉘앙스가 딱딱 들어맞는 농담을 깔깔대며 지껄여댈수 없음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나는 여기서 아직 이방인이다.

해풍을 마시면서 목책을 따라 언덕길을 걷는다. 여기 새로 이사 온 캄스바와 친해지려는 노력이다. 더 어디로 갈 것인가. 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거

## 친구

서용석(68, 오하이오)

영정사진에서 친구는 하얀 안경을 쓰고 있었다 우리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그가 누워 있는 꽃무늬 상자 속에서 누군가가 기타를 치고 있었다 \*유어 치팅 하아트, 귀에 익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비 한 마리가 어디론가 날아갔다

이월 첫 날 병아리들은 먹이를 찾아 헤매고 하늘에서는 진눈개비가 내렸다 보라색, 혹은 오렌지색 편지가 뿌려지고 있었다 낮 선 사람들의 기도 소리 속에서 천사들이 치는 박수소리도 들렸다

그러나 한없이 흐르는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안개 속에서 뒤를 돌아다 보며 자꾸만 돌아다 보며 분명히 그가 쓸쓸히 떠나가고 있었다

\* Hank Williams Jr. 의 song "Your Cheating Heart"

슬러 올라가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일어나버린 일들을 되돌려 놓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도시에서 사는 아이들이 몇 번 방문하면 아마 모두 끝이 날것이지만 (행복한 죽음)"



# 정두현 시인 서시(序詩)문학상 수상



2009년 시문학(詩文學)을 통해 한국 시단에 등단한 정두현(61) 동문이 작년에 미주서시문학상(우수상 부문)을 수상하였다. 운동주문학사상선양회가 펴내는 계간지(2012 Summer)에 실린 수상작 네(4) 편 중 셋과 심사평의 일부 그리고 "수상소감" 을 소개한다. 그의 초판 시집 "부다페스트의 환생은 2010년 3월 시문학사에서 펴냈으며 동년 시계탈에 보도된바 있다. (편집부)

### 심사평: 빼어난 모국어의 서정적 성취

이번에 새로 제정된 미주서시문학상 우수상에는 정두현 시인과 윤영범 시인이 각각 당선되었다. 정두현 시인은 '어머니는 낙타가 되어' 에서 남편과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삶을, 사막을 건너는 낙타에 투사하여 아름다운 서정의 결을 잘 형상화해 보여주었다. 밤하늘의 별자리 같은 시편이었다. '수평선' 에서도 거대한 경전으로서의 수평선을 심미적으로 축조하는 상상력을 드러내줌으로써 상당한 시적 역량을 보여주었다. 미주에서 어렵게 모국어의 서정적 성취를 이루어갔다는 점에서 소중한 분이라 생각된다.

### 정두현의 환생을 통한 탈주와 회해

시는 본질적으로 회심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추구한다. 정두현은 입체적인 관점과 다채로운 방법으로 영토화된 시공을 가로질러 탈주하는 자유인의 초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환생의 장치를 통해 그의 내면에 있는 인물과 공간을 입체적으로 표상한다. 역사적 자아를 훼손하지 않은채 존재의 근원에 다가서려는 그는 회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낙타처럼 사막을 횡단하기도 하고, 노도 없이 사막을 저어가는 어머니를 호명하면서 객관적 인식과 자기인식의 줄다리기를 유지하면서 진정한 삶의 통로를 찾고자 한다. 그것은 이승과 저승의 심연을 넘어서 천형의 삶을 겪으며 천국으로 밀어가는 구원의 순례이기 때문이다. 환생을 통해 삶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구도를 수행하는 그의 발걸음은 결코 무겁지 않다. 그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한 줄의 경전을 경건하게 읽고, 노보시비르스크의 이방에서 어느 봄날 아주 오래된 알타이 들장승을 해 후하며,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희생된 뼈들을 수습하면서 전쟁의 상처를 스스로 쓰다듬기도 한다.

그의 시는 이처럼 동서양의 내면을 아우른 타임머신을 타고 사물과의 근원적 회해를 모색하는 보기도분 미적 성취를 이루고 있다.

심사위원: 김우중(문학평론가), 이영섭(시인), 유성호(문학평론가)

### 부다페스트의 환생

부다페스트엔 영웅들의 공장이 있고 아름다운 성들이 많지만 나는 아직도 부다페스트 역에서 쟈넨드리 역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만난 소년을 기억하고 있다.

안개비, 봄비가 내리는 창 밖 풍경보다 눈이 마주친 소년의 인상이 전생의 인연을 다시 살려 놓았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 무덤조차 남기지 못한 아우, 다섯살이었던가, 여섯살이었던가

아우의 영혼이 부다페스트에서 환생에 내 앞에 앉아 있을줄이야

그냥 스쳐지나갈 수 없었던가 서로 눈길이 마주칠 때마다 부끄럽게 미소를 짓던 헝가리 소년

우리는 깊고 깊은 인연의 강을 건너고 있었다. 푸른 다뉴브 강

다음 기차역에서 내릴 때까지 아니, 지금도

소년에게 나는 "응아,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하고

<전면에서 계속> 에서 또 모였다.

김주평과 주광국, 여행사의 조앤이 극성으로 끌고 온 가라오케 기기를 조립해 놓으니 또 잠기 자람이 벌어졌다.

주광국 부부는 18번 "잘했군 잘했어" 말고도 무슨 노래였는지는 기억이 없는데 Mrs. 주의 노래에 주광국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며 추입새를 넣어서 또 한 번 히트를 쳤다. (주광국 부부는 이번 여흥 프로의 최고 공신이다. 위원장은 그들에게 그래미상을 수여 해야 한다.)

박정식의 노래에 맞춰 땅바닥에 펄쩍 주저앉아 신발을 벗어 땅을 치며 수심가(?)를 한 마당 풀은 이흥규는 미토콘드리아가 미투링가 하는 거 연구하다가 어떻게 된 거 아니 시방?

김진홍 부인의 부채춤은 절제 된 속에서도 유연하고 자유 분명한 격조 높은 한 폭의 예술 작품이었다.

아쉽지만 내일 아침 일찍 떠나는 팀들을 위해 작별 인사를 나누어야 했다. 벌써 헤어질 시간이라니.

신순현을 기점으로 일렬로 서서 모두가 돌아가며 작별인사를 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신순현을 이 멀리까지 나오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의 용기 일까 아니면 우리 동기의

유난히 돈독한 우애 때문일까.

둘 다 정답이겠지만 서로가 스스로 움이 없이 한 몸이 되어 가슴을 열 수 있는 사이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

내일 아침 떠나기 전에 그를 한 번 더 볼 수 있으려나...

### 3월 2일 (알로하 오에)

이번처럼 쉽게 가까워지고 헤어짐이 섭섭해 보기는 처음이다.

작년엔 예기치도 않던 동기가 돌아나 우리를 떠났다.

좋다는 거 다 찾아 먹고 혼자 100살까지 살면 될 하나. 친구가 없으면.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눠 먹자. 나보다 친구를 더 위하자.

모두 건강하고, 절대 서두르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또 만나기를 기약하며...

Aloha 'oe,  
Farewell to thee,  
Until we meet again.

P.S. 김주평, 서윤석, 주광국 이건설과 그 부인들 그리고 감삼우의 행사를 위한 봉사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쟈넨드리 역을 떠났다.  
아직도 떠나고 있다  
그는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고 있다  
소년의 크고 맑은 눈동자에  
웅이의 눈물이 반짝인다.

### 어머니는 낙타가 되어

어머니는  
낙타가 되어  
사막을 횡단하고 있다

전쟁 중 행방 불명이 된 남편의 빈 무덤과 어린 나이에 간 아들의 무덤을  
안장의 앞 뒤에 세우고  
지금쯤 고비사막을 건너고 있다.

살아 있는 아이들을 낙타의 등에 얹혀 가게 하다가  
오아시스에 닿아 하나씩 떨어트리고  
아직도 길고 긴 모래 언덕을 넘어가고

스스로 맨발로 걸어가면서  
아이들은 두 개의 봉 앞 뒤로 앉히고  
가장 빛나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가르쳐주시며  
이승에서 몇 개의 사막을 건넜던가

이 세상에서 못다 산 두 사람의 천형을  
천국으로 밀어가면서

노도 없이  
사막을 저어가고 있다.

아, 어머니

### 수평선

태고의  
하늘과 바다가  
장구한 세월 속  
공동 지술한  
단 한 줄의 경전

한 줄 뿐인 경전  
읽고 읽고 또 읽고  
쓰고 쓰고 읽고  
억 겁의 세월 흘렸건만  
한 줄 뿐인

섬뜩하게  
한 줄로 가슴 찢르고  
가슴 중심을 관통하는  
한 줄로만 쓰여진 거대한 경전  
단, 한 줄 뿐

수상소감: 뒤늦게 詩라는 열병에 걸렸으니 자연 등단도 늦고, 한 권의 시집 출간조차 늦었습니다. 이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있던 차에 이번 수상소식을 듣습니다. 마치 운동주 <서시>가 제 어깨를 마구 때리는 듯한 감회에 젖습니다. 어서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라는 채찍이겠지요.

관여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운동주님, 깊이 홀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농담 골목

A학생에게 "저녁을 먹었소?"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해가 지기전에 일찌기 먹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B학생에게 "밥을 먹었소?"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빵을 먹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면)

눈 코 뜰 새 없을 때가 언제지? 머리 감을 때. (면)

역사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수돌이에게 선생님이 질문을 했다. "수돌아, 선생님이 방금 전에 백제의 마지막 임금인 누구라고 했지?" 수돌이가 대답을 못하고 찢찢매자, 짝궁인 새침이가 의자를 가르키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이거야. 이거!" 의자왕 이라는 뜻이었다. 수돌이가 얼른 알아채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네, 걸삼왕 입니다." (이덕송)

학교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하기를 "지난 시간 프랑스 말로 남자를 '무슈' 라고 한다는 걸 배웠죠?" "네! 선생님." "됐어요. 그럼 오늘은 여자를 부르는 말을 가르쳐 주겠어요. 결혼한 여자는 '마담' 이고, 결혼 안한 여자는 '마드모아젤' 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선생님을 교실을 둘러보고 나서 맨 앞줄에 앉은 학생에게 물었다. "마담과 마드모아젤은 어떻게 다르지요?" 그 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것은 '무슈' 때문입니다." (이덕송)

첫날 밤에 신부가 물기를 "내가 처음 여자 맞아요?" 라고 하니, 신랑이 "그럼요. 그런데 왜 여자마다 똑 같은 질문을 나한테 하지요?" 라고 했다. (기)

'자살' 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 '내힘 들다' 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 (김세-)

